

구성원 소개

이원근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송무전문가입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판사 임관 후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상사, 행정, 신청, 영장 재판부를 두루 거쳤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하고 법무법인(유한)바른에 입사해 민사, 형사, 영장, 행정, 신청 등 각종 송무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남양유업과 한앤코사이의 주식양도 소송(상사, 주식), △ 호주 NDIS 펀드가입자들이 집합투자업자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KBS 이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및 해촉처분의 취소,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에서 대통령을 대리해 모두 승소, △ 도시개발조합의 이사인 피고인이 체비지 매매와 관련해 70억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건에서 무죄 선고, △ 다단계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 삼성전자가 해외 파견업체 직원을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영장 기각, △ 방산업체가 타사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직원을 대리해 가처분기각처분, △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여러 양형요소를 잘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 의뢰인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몰수처분을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몰수 취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등이 있습니다.

학력

1991	경북영주대영고등학교 졸업
199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200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2000~2003	육군법무관(검찰관, 법무참모)
2003~2006	대구지방법원 판사(민사, 형사 합의)
2006~200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형사)
2007~20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민사)
2009~20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영장, 형사)
2011~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
2012~2013	서울고등법원 판사(상사)



TEL.
02-3479-2481

MAIL.
wonkeun.lee@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권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형사] 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자금 횡령 혐의로 직접 구속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이 재판 중 보석허가를 받고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사노무] 비등기 임원이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여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귀책사유가 없음을 밝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주요업무분야

건설소송
재건축 재개발
기업형사
공직선거대응
행정소송
금융소송

2013~20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영장, 민사)
2015~2017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2017~2021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형사 항소)
2019~2021	수원 오산시 선거관리위원장
2021~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2022~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이혼/상속 소송
산업기술유출대응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최초로 인정 함

형사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심리를 거쳐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함

-생활방범 CCTV설치와 관련하여 수원시 공무원이 경기도의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시킨 검찰 범죄피해자센터 운영위원회에 실형을 선고

영장

-안산 및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마 사건

-이석기 의원 구인집행 방해관련 진보당원 사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

-줄기세포 관련 법안 통과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현직 의원 비서관 사건

-이외 다수의 살인 등 강력사건, 보이스피싱, 뇌물, 횡령, 사기, 배임사건 등